

「 앙리 카방느 (Henri Cabannes) — 제 2 차 세계대전(1943~1945 년) 체험기 — 」

— 목차 —

- I. 프랑스 탈출
  - 1. 탈출준비
  - 2. 피레네산(Pyrénées)을 넘어 스페인으로
  - 3. 스페인 횡단
  - 4. 모로코(Morocco)를 향해서
  
- II. 공군지원
  - 5. 카사블랑카(Casablanca) 그리고 알제리(Alger)
  - 6. 마라카(Marrakech)
  - 7. 영국

I. 프랑스 탈출

1. 탈출준비

1942 년 10 월, 나는, 이공 과학교(École Polytechnique)로 부터 받은 입학허가를 두번씩이나 사퇴하면서까지해서 고등 사범 학교(École normale supérieure)에 입학했다. 실은 1941 년, 파리의 상루이(Lycée Saint-Louis)“수학과 특별 준비반”의 학생이었을때, 나는 이미 첫번째의 이공과학교의 입학 시험에 합격해있었다.

1943 년 2 월 16 일, 국영 라디오방송국은“S.T.O.(독일 협력 강제노동)”제도를 발표했다. 1920~1922 년에 태어난 남자들은 교대 요원으로서 징병되어 독일에 동원되었다. 그 와 동시에, 21~31 세까지의 남자들도 징병대상이 되었다.그 날 저녁, 런던에서는「징병반대!」운동이 급속히 퍼져나갔다.징병을 당하기전에 도망 갈려는 사람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런던에 거주하고있었던 프랑스인들의 STO 반대 운동은, 그 때까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행해졌던 어떤 반독운동 보다도 강렬했었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결코 히틀러에게 협력해서는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1943 년 8 월 1 일, 「대 독일 협력 거부자 리스트」에 실린 인원수는 8 만 5 천 명에 달했다. 1923 년에 태어난 나는 징병을 당할 우려는 없었지만, 고등 사범 학교를 잠시 중단한 후, 영국이나 북부아프리카에 피하기로 결심했다.

7 월에 일반 물리학, 미분학, 고등해석학의 시험을 통과한 한달 후였던 1943 년 8 월 나는, 오오토·피레네(Hautes-Pyrénées)의 베르나데-데바(Bernadets-Debats)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촌에게 농업봉사를 하러 갔다. 나는 그곳이 스페인 국경으로부터 70 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그 마을의 청년 3 명이 STO 에 소집되어 독일로 출발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Tarbes 에서, 나는 부모님의 친구인 도니·푸류네(Denis Prunet)씨를 방문했다. 내가 북부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그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비밀 조직과 연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타르부(Tarbes)를 떠날 때까지 푸류네씨 집에 가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친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마르세유(Marseille)를 경유해서, 파리로 돌아왔다. 친할머니는 나의 탈출계획을 몹시 반대하면서,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내아버지가 잡혀갈거라고 했다. 나의 아버지는 파리 대학 이학부의 물리학 교수를 하고 있었다. 나는 바르(Var)현 레렉(Lecques)에 있었던, 부모님의 별장에서 며칠을 보냈다. 레렉은 마르세유와 툴롱(Toulon)의 사이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별다른 목적도 없이, 해변이나 해안의 별장거리에 설치 되어있었던 적의 기습상륙 방지설비를 돌아보았다.

파리로 돌아온 나는 형의 학교친구였던 폰(Fontanet)과 베레(Baylé)라는 하는 이공과학교생이, 스페인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비밀 조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그런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던 나는 행운이었다. 폰 씨는 이공 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알게된 비밀 조직과 접촉하기 위해서 루루드에 갔었다. 하지만, 그 비밀 조직은 이미 「적발」을 당해서, 조직의 기능을 상실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우크스브르크(Augsburg)의 멧서슈미트(Messerschmitt)공장연구소였던 코드론·루노(Caudron-Renault)사의 연구소에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다. 이공 과학교는 STO 의 명목으로, 수명의 학생을 파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폰 씨는 입학동기인 베레와 재회했다. 몇 사람의 이과계 학생이 STO 의 명목으로 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폰 씨와 베레는, 나의 형으로부터, 내가 어떤 비밀 조직을 알고 있지만 혼자서 가고 싶지는 않아서, 함께 탈출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3 명이서 함께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9 월의 말경,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학교가 나를 찾는 일이 없도록 내가 프랑스를 떠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등 사범 학교의 부교장이었던 조류쥬·브류아(Georges Bruhat)씨를 만나러 갔다. 우리는 내가 남프랑스에서 휴양하고 있는 것처럼 하자는데 동의 했고, 브류아 부교장은 나에게 행운을 빈다고 했다. 그 후 두 번 다시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브헨바르트(Buchenwald)의 강제 수용소에 보내져, 작센하우젠(Sachsenhausen)에서 죽었다. 1943 년 10 월 4 일, 폰과 베레는 연구소로부터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들 셋은 함께 오스테르리트(Austerlitz)역으로부터 야간열차로 툴루즈(Toulouse)를 향했다.

한밤중에 비에르존(Vierzon)에서 승객을 검사하고 있었던 독일병이, 독일어로 나에게, 신분 증명서의 검증이 틀리기 때문에 전철을 내리라고 했다. 그때문에 나는 열차를 내려 철도의 옆에있었던 텅빈차량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다음날, 나는 비에르존의 독일 사령부까지 가서, 신분 증명서에 정식검증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역으로 돌아와, 툴루즈행의 다음 열차를 기다려, 10 월 5 일 20 시경 툴루즈에 도착했다. 호텔방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위험을 피해 트르 80 번지에 있는, 친구 잔·콘부(Jean Combes)의

부모님집을 찾아갔다. 나는 틀루즈, 타르브, 마드리드, 카사블랑카, 알제리, 브라자빌(Brazzaville)에 있었던 친구들의 주소를 전부 외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없도록, 글로 쓰여진 것은 아무것도 몸에 지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잔·콘부와 그의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방문한 나를 하룻밤 집에 묵게 해 주었다. 다음날 나는 다시 열차로 오후에 타르브로에 도착해, 프뤼네(Prunet)씨에게 갔다. 그는, 나를 하룻밤 묵게 해 주었고, 아침 식사까지 주었지만, 낮동안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했고, 식사도 해야만 했다. 내가 오기전날에 그는 폰 씨와 베레의 방문을 받았었다.그들은 스페인에 출발할 때까지, 나처럼, 베레씨의 누나친구였던 용기 있는 젊은 부부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다음날, 폰 씨와 베레와 나는 다시 만나, 낮동안 에는 매일 세사람중 둘이서 밖에서 함께 시간을보내고, 나머지 한사람은 혼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스무살이나 되는 청년 세명이 함께 몇일이나 타르브의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각각 차례가 오면, 혼자서 타르브의 중심가가가인 외각을 걸었다. 딱 한 번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르르드(Lourdes)까지 갔었다. 우리들은 몇일간 생활에 필요한것 만을 채운 배낭만 가지고 1943 년 10 월 15 일 금요일 타르브 역에 오도록 연락을 받을때까지 한번도 비밀 조직의 멤버를 만나지 못했다. 그날, 나는 파리에 있는 부모님에게 불필요하게 된 짐을 보냈다.

## 2. 피레네산(Pyrénées)을 넘어 스페인으로

우리들은 각자 예정 시각에 타르브역에 도착했다. 비밀조직의 책임자처럼보였던 두사람이 우리들에게 한사람당 3000 프랑씩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국립 과학 연구소(CNRS)의 연구원 초봉은 한달에 2000 프랑이었다).열차는,바니르-드-비고르(Bagnères-de-Bigorre)행 완행열차로, 벌써 역에 들어와 있었다. 3 등객차는, 칸막이 객실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각 한쪽 편에 하나씩, 두곳의 승강구가 있었다. 그들은 객실의 승강구 중 하나를 열어, 폰, 베레와 나에게 그곳에 탑승하라고했다. 천정의 실내등이 꺼어져있었기때문에, 객실에 앉아있었던 다른 두사람을 분별하는게 고작이었다. 바니르-드-비고르의 한역앞이었던 프작크(Pouzac)정거장에서, 객실에 있었던 승객중 한명이 선로측 승강구를 열면서 우리들에게 내리라고 했다.열차가 떠난후 우리는 피레네산을 넘어서 프랑스를 탈출하려는 사람이 가이드를 포함해서 9 명이 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바니르-드-비고르로부터는 출입금지 구간이 설치되어있어서 독일의 허가 없이는 그곳에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평원과초원을가로질러,산트-메리-드-칸판(Sainte-Marie-de-Campan)을 거쳐,밤새도록 걸어 아스판(Aspin)고개까지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우리들을 안내했던 가이드는, 새로운 가이드가 다음날 밤의 행정을 위해 우리들을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10 월임에도 불구하고,표고 1500 미터의 장소에서 야영을 해야했다. 행군을 시작한 첫날밤과 아스판고개 근처 숲속에서의 「휴식」을 통해서, 우리들과 같이 탈출을 시도한 동행인들에 대해 어느정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은 열일곱살로 「베르마르트(Wehrmacht)독일군」에 강제로 징병당한 알자스인 이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탈병」해서, 프랑스 군에 입대하기 위해 모로코로 갈려고 했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산시르(École de Saint-Cyr)육군사관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했다. 그는, 지도와 자석을 사용해 혼자서도 스페인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주일전부터 피레네산맥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폰 ,베레,그리고 내가 이공 과학고 및 고등 사범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었지만, 몸씨 피곤해보였다. 우리들 세사람은, 비밀 조직의 사람들이 말한대로 작은 배낭에 몇일동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만을 넣어있었지만, 그는 단망토, 예비용 구두등의 중장비를 지니고있었기때문이었다. 다른 네명에 대해서는 애매한 기억 밖에 없다.

10 월 16 일 토요일, 밤이되자, 새로운 가이드가 우리를 찾아왔다. 서너시간 걸은 후, 그는 우리들을 곡물창고로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10 월 17 일 (일요일) 까지 시간을 보내라고 했다. 물론 소리를 내서는 안되었고, 밖에도 나갈 수도 없었다. 일요일밤, 또 다른 가이드가 우리를 찾아왔다. 비엘-올(Vielle-Aure)마을에서 가장 위험했던 행정은, 골짜기의 경사면을 지나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다. 독일병들이 마을에 있는 카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마을의 거주자 처럼 가장해,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한사람씩 다리를 건넜다. 그 후, 슬레이트 채취장에 간신히 도착해, 거기서 아침 5 시까지 「휴식」을 취했다. 그 후에 또 다른 가이드가 우리를 찾아와서, 이번에는 산중턱의 셋길이란 골짜기의 동쪽 경사면을 리우마쥬(Rioumajou)의 구호소까지 걸었다. 눈이 길을 덮기시작하고 있었다.

10 월 18 일 일요일 11 시, 가이드들은, 플랜고개(le Port du Plan 표고 2457 미터) 를 가리키면서, 그 뒤쪽이 스페인이라고 했다. 가이드들은 30 분정도면 거기에 도착할거라고 하면서, 좋은 여행이 되기를 빈다면서 우리들과 헤어졌다. 우리들은 눈이 내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은 처음엔 종아리 근처였지만, 금세 무릎이 덮힐 정도로 쌓였다.14 시, 고개는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발속도는 점점 느려져갔다.15 시, 완전히 지쳐 버린 나는 눈속에 배낭과 그 안에 넣었던 식량을 모두 버렸다.폰 씨와 베레는 나보다 강해서, 그것을 주워 모아 주었다! 우리들 9명중 6명은 행정을 계속했지만, 다른 3 명은 힘이 다떨어져서 골짜기를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16 시, 우리는 국경의 플랜고개에 도착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독일인도, 독일에 협력했던 프랑스인들도, 국경주변의 모든 고개를 감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우리가 돌파한 플랜고개 처럼 들어가기도 힘든곳은 감시대상도 아니었다.

### 3. 스페인 횡단

마침내 우리는 스페인에 도착했다! 우리도 그 일부였지만, 그 당시 프랑스인 23, 000 명이 스페인으로 탈출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었다. 밤이되자, 우리는 곡물창고가 있을 만한 곳까지 골짜기를 내려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긴 설중행군으로 입고있었던 옷이 전부젖어있었기때문에, 우리들은 알몸이 되어 건조안에서, 타르브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냈다. 다음날 10 월 19 일 화요일, 신크에타(Cinqueta)의 골짜기를 내려갔다. 도중에, 건너지 않으면 안되는 다리가 있어, 그 다리를 건넜는데, 반대편 골짜기에 있는 경사면에는, 스페인의 민간 감시인들이 한 주에 몇차례나 높은 산을 넘어 오는 프랑스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우리들은, 감시원들의 일이 끝나는 오후 4 시경까지 그곳에 있다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살고있는 플랜(Plan)마을까지 내려갔다.

마을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아무것도 지닌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빵과 소세지등 먹을것을 주었다. 그 날밤, 감시인들은 그들이 숙소였던 어느 허스름한 건물안에 우리를 감금하면서, 몇일후에 프랑스영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우리들은 가진것도 없었고,아는것도 없었기때문에, 어디에 갈 수도없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낮동안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고, 플랜 마을의 농민들은그들 역시, 매우 궁핍하게 보였지만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몇일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않지만, 프랑스영사를 만날 수 있다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우리들은 감시원들과 함께 출발 했다. 우리는 그 마을은 발바스트로(Barbastro)라는 곳으로, 플랜마을로 부터 106 킬로 떨어져 있었다. 12 킬로미터 정도 걸어서, 우리들은 사리나스·데·신(Salinas de Sin)에 도착했다. 거기서 비엘사(Bielsa)와 발바스트로를 잇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감시인들은 버스요금을 지불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했지만, 남아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고 싶었기때문에 그들에게는 돈이 없다고 대답했다. 감시인들은 우리들에게 돈이 없으면 발바스트로까지 걸어가야한다고했지만, 프작크로부터 플랜 마을까지 며칠 밤동안을 걸었던것과 비교하면 아무런치도 않는 일이었다. 우리는 다음 마을까지 걸어가서 감시인과 함께 비엘사로부터 온 장거리 버스를 탔다. 아인사(Ainsa)라는 작은 마을에서 버스가 꽤 오랫동안 정차했었기때문에, 감시인들은 우리를, 카페로 데리고 갔다. 거기의 주인은 우리가 가진것이 너무 없었기때문에, 무료로 음식을 주었다. 우리들에게 며칠동안이나 먹을것을 주는것을 보면, 스페인사람들에게있어, 독일과 싸우려는 우리들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프랑코 체제의 종말을 앞당길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을 영웅으로 여겼던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들은 저녁 8 시쯤에 발바스트로에 도착해, 우리는 감시인들과 함께 예전에 수도원이었던 건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들은 그곳이 영사가 있는곳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들의 놀라움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우리들은 감옥에 있었다! 우리들은 등록되어, 신원에 관해 질문받았고 가지고 있는 모든것, 말하자면 얼마안되는 프랑스 돈을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영수증 대신에 전부 몰수 당했다.그리고 우리들은, 70 명 정도의 프랑스 사람이 있는 커다란 방에 데리고 갔다.그들은 언제부터 여기에 있는 것일까? 같은 방에있던 수감자들은 자리를 조금씩 좁혀서, 우리들 6 명을 위해 4 명분의 짚이불을 확보해 주었다.폰, 베레와 나는, 두 짚이불에서 1 개월에 걸친 발바스트로 감옥 체제동안 같이 지냈다.우리들은 국경을 넘었을 때의 옷 밖에 가지고 있지않았기 때문에, 12 월 26 일까지

같은 옷으로 지내야만 했다. 그 날은 우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 말라가(Malaga)에 가는 도중에, 마드리드에 있었던 적십자(어떤 적십자였는지 모르겠지만)가 새로운 옷을 지급해 주었던 날 이었다. 같은 감방에 있었던 수감자들은 우리에게 프랑스나 전쟁에 대한 정보를 물었지만, 그들의 질문으로 부터 그들이 적어도 6 개월 전부터 여기에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몹시 낙담했다. 얼마정도 이야기를 주고 받은 후에, 우리들이 낙담해있는것을 보고, 그들은 웃기 시작했다.왜냐하면, 당시 발바스트로 감옥의 수용 기간은 약 1 개월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죄수들이 올 때마다, 똑같은 농담으로 장난을 치는것이였다. 다음날, 우리는 감옥에있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부터 발 끝까지 삭발을 했다.

오전 10 시경, 우리들이있었던 감방의 죄수들은 모두, 1 시간 동안 감옥 안뜰에 나올 수 있었다.거기서 다른 큰 방에 수용되어있었던 프랑스 사람들을 만났다.그 프랑스 사람들중에, 폰 씨와 베레는 이공 과학교의 친구와 재회했고, 나역시 내형의 고등학교 친구였던 잔·베돈(Jean Beydon)과 재회했다.잔·베돈은 산시르 고등학교(Lycée Saint-Louis)에서 해군학교의 수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군 학교는 이미 없어져 버렸지만, 채용시험은 계속 하고 있었고, 합격한 학생들도 파리 국립 중앙 공예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있었다.

발바스트로 감옥에는 많은 스페인 공화당원들도 수용 되어져 있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몇년전부터 그곳에 수용되어져 있었고, 프랑코 장군이 1975 년에 죽을때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때문에, 그 후로도 몇 년간이나 계속 수용되어져있었다. 안뜰은 감옥의 전 죄수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넓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인 죄수가 프랑스인 죄수와 같은 시간에 안뜰에 나올 일은 없었다. 감옥에서는 일요일마다 미사가 있었다. 스페인인들에게는 미사에 참석하는것이 의무였지만 프랑스인들은 임의였다. 하지만, 감방을 나올 수있는 또 다른 기회여서 전원이 출석했었다.

국경을 넘어 오는 프랑스인들이 정기적으로 감옥에 들어왔다.어느 날, 우리는 10 월 18 일에 플랜고개의 경사면에서 되돌아간 3 명의 동료 중 한사람과 재회했다.그는 다른 2 명 중 1 명과 리우마쥬(Rioumajou)의 구호소까지 내려갔었지만, 나머지 한동료는 완전히 지쳐버려 눈속에서 잠을 자버려서 죽었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했다.죽은 것은 산시르 사관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했었던 사람이었다.산시르 사관학교는 이미 없어져 있었지만, 그곳에 입학하기 위한 수험 예비 클래스나 채용시험은 아직 실시되고 있었다(아마 장래를 생각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겨우 21 살이었고, 사폰(Sapone)이라고 했었다.

정기적으로, 감옥소장이 발바스트로를 출옥하는 죄수의 이름을 부르러 왔다.1 개월 후, 폰 씨와 베레와 나의 이름이 출옥자 명단에 실렸다. 정말로 기뻐다! 우리는 2 명씩 수감에 연결되어 열차로 사라고사(Saragosse)까지 갔다. 사라고사의 역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2 명씩 연결된 채로, 감옥으로 연결된 길을 걸었다.그곳은 매우 근대적인 감옥이었고, 10 평방 미터의 방에 약 15 명이 한조로 수용되였다. 방 한구석에는 수도꼭지가 있었고, 화장실용으로 구멍이 열려져있었다. 한두시간후, 짙이불이 옮겨져 왔지만, 전원이 동시에 눕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지옥같은 생활이 3 일간 계속 된 뒤, 우리는 열차로 미란다(Miranda) 의 강제 수용소를 향해 출발했다.

미란다는 수용소는 발바스트로 감옥과 사라고사의 지옥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 수용소는 스페인 내전때, 히틀러의 총고에 따라 프랑코 장군이 지었다. 수천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수용하고 있었다. 다수의 정련된 목제임시막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막사에는 120~130 명이 수용되어있었다. 수용소는 군에 의해서 감독·조직 되어있었다. 벽,철조망,감시초소가있는 전형적인 수용소였다. 프랑스에대해 아무런 친밀감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 한 대령이 수용소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용소의 비인도적인 현실, 특히 가슴이 메씩꺼워질정도로 불결한 반합, 수저, 짚이불, 너털너털한 담요가, 물자배급의 현실을 현저하게 나타냈다. 막사는 중간에 있는 통로로 나누어져있었고, 그 양측에는 낮은 이불로 만든 「벽」으로 나누어진 좁은 「방」이 일렬로 줄지어져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전등이 통로를 어슴프레하게 밝히고있었다.각각의 「방」에는 몇 사람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나는 막사중의 한곳에 들어갔지만, 이공 과학교를 나온 폰 씨와 베레는 「사관동」에 들어가있었고, 나는 그들을 방문하러 그곳에 들렀다.

「사관동」을 방문한 어느 날, 산르이 고등학교에서 알게 된, 1943 년 이공 과학교의 입학 시험에 합격한지 얼마 안된 잔·루소(Jean Rousseau)가 사관동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관동」은, 가장 고참 사관인 루이(Louis) 대위가 책임자였다.나는, 똑같이 투옥된 루이대위에게, 나도 1941 년과 1942 년에 두번이나 이공 과학교에 합격한 것, 그러나 고등 사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그것을 사퇴한 것, 그러므로 잔·루소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으로 「사관동」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폰, 베레와 나처럼, 발바스트로와 사라고사에 있었던 루이 대위는 나에게 짐을 가지고 오도록 말했다. 가진짐이 거의 없었기에, 곧 말한대로 했다.당연한 일었지만, 미란다에서의 생활은 괴롭고, 위생 상태도 열악했다.미란다는 에블 위, 빌바로로부터 남쪽으로 80 킬로, 표고 460 미터에 위치해, 때는 12 월이었다.하지만, 수용소 내부에서 우리는 자유로웠고 하루종일 산책도 할 수도 있었다. 이주마다, 풀려나는 몇백, 혹시 천명에 달하는 명단이 붙여져 나왔다.1943년 12월 24 일, 폰 ,베레, 내 이름이 다음날에 풀려나는 사람의 명단에 실렸다. 12월 25 일, 마침내 우리들은 미란다 수용소를 나와, 스페인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 4. 모로코를 향해서

미란다는 수용소를 나오자, 알제리에 본거지가 있었던 프랑스 국가 해방 위원회의 대표가 우리들을 맞이해주었다.우리는 미란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같은 식사를 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열차를 타고 12 월 26 일 아침에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우리들은 적십자 센터에 데려 가 졌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10 월 4 일에 파리를 떠난 이 후 한번도 갈아 입을 수 없었던 옷을 전부 벗어 버렸고, 면도와 샤워를한 후 새옷을 입고, 음식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우리들은 스페인 돈을 조금 받았고, 말라가로 출발해야하니까 저녁때까지 돌아오도록 부탁받았다. 나는 1939 년 고등

사범 학교 입학동기로 마드리드에서 프랑스인학교의 교사를 하고 있었던 기·르포르(Guy Lefort)씨를 만나러 갔다. 고등 사범 학교의 카르코피노(Carcopino) 교장과 브류아 부교장은, STO 에 학생들이 소집되는 것을 막기위해, 많은 고등사범학교생들을 마드리드의 프랑스인 학교에 근무하도록 임명했다. 이 학생들은 사증을 소지했었고, 침대차로 마드리드에 와있었다. 르포르의 연락처는 외우고있었다. 르פור는 나의 방문을 환영했고, 자신과 프랑스인 학교의 동료들이 드골(de Gaulle)장군에 찬동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자,그는 지금부터 그들에게 급료를 주는 것은 더이상 페탄(Pétain)이 아니라 드골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훌륭한 행동을 칭찬했고, 내가 스페인의 감옥에서 2 개월 이상 보냈다는 것, 그리고 모로코로 가서 공군에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들은 버스를 타고 마드리드를 떠나, 밤새 달렸다. 버스는 편안했었고,우리들은 들떠 있었다. 새벽에, 그라나다(Grenada)에서 30 분 정도 정차했고,오전에는 말라가에 도착했었다. 1943년 12월 27일 월요일의 일이었다.대략 1500 명에 달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란다 수용소로부터 와 있었지만, 다른곳의 감옥에서도, 「해변의 보양지」로부터도 와있었다. 「해변의 보양지(balnearios)」라고 하는 것은, 18 세 이하라고 자진 신고한 프랑스인 2, 000 여명을 수용하고 있었던 호텔이나 민박을 말한다.말라가에서 출발할때까지 우리들은 매트리스 대신에 짚이 깔린 원형 투기장안에서 지냈다. 낮동안, 우리는 자유로웠다.

10 월 21 일부터 12 월 29 일동안, 2 척의 배로 구성된 6 개 호송선단이 스페인을 떠났다. 말라가로부터는 프랑스로부터 탈출한 약 9, 000 명을 수송했다.12 월 29 일, 선발의 5 선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2 척의 배 시디·브라임(Sidi Brahim)호와 레핀 총독 (Gouverneur général Lépine) 호가 말라가의 항구에 입항했다.원형 투기장에 묵고 있었던 폰,베레, 그리고 나를 포함한 1,500 명의 프랑스인이 승선했다. 그날 오후, 우리들은 스페인 해안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우리는 모로코(Maroc)를 향해서 출발했던 것이다!1943 년 12 월 31 일 금요일, 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카사블랑카(Casablanca)에 상륙했다.88 일간에 걸친 프랑스 탈출, 파리로부터 카사블랑카로의 긴여행이 끝났다.

## II. 공군지원

### 5. 카사블랑카 그리고 알제리

1943 년 12 월 31 일 금요일, 말라가로부터 2 척의 배로 카사블랑카에 도착한 프랑스인들은, 여러가지 수속을 거치기위해, 중계 수용소에 데려가 졌다. 수속은, 자진신고에 근거해서 가짜 신분 증명서 교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사관들이, 장시간에 걸쳐 우리들의 이력, 학력, 피레네산 월경, 스페인 체재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을 넘은 날인 10 월 18 일자로 소위에 임명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프랑스로부터 탈출한 사람 중에, 4 곳의 군대 학교, 즉 이공 과학교(École Polytechnique), 산시르 사관학교(École de



Saint-Cyr), 해군 학교(École Navale), 공군 학교(École de l'Air)의 학생인지, 혹은 사립의 5 곳의 학교, 즉 고등 사범 학교(École normale supérieure), 파리 국립 고등 광업 학교(École des Mines de Paris), 국립 토목 학교(École des Ponts et Chaussées), 파리 국립 중앙 공예 학교(École Centrale de Paris), 식민지 학교(École Coloniale) 학생들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소위에 임명되었다. 다른 사관들은, 다가올 프랑스에서의 전투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우리에게 물었다. 나는 알고 있었던 레·렉(Lecques)의 해변과 해안 별장거리의 설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종전까지 공군에 입대한다는 지원서에 서명했다. 이 때부터 폰, 베레들과 나는 서로가 다를 길을 걷게 되었다. 폰 씨는 포병대에, 베레는 전차대에 지원했다. 프랑스로부터의 탈출한 사람들은 희망하는 부대에 지원할 수 있었다. 스페인으로부터 선단이 도착할 때마다, 아르자스인을 가장한 독일군 스파이가 잠입해 있었고, 이들은 발견되면 즉각 총살되었다.

1944년 1월 4일 월요일, 나는 중계수용소를 나와서, 카사블랑카의 209 병참부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상당량의 완전한 군장비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Journal Officiel 에서 고등 사범 학교 입학 확인과 소위 임명이 확정되어 알제리에 보내질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했다. 카사블랑카 체제중, 어머니의 사촌형제인 안드레·모와테시에(André Moitessier)를 만나러 갔다. 나는 그의 주소도 역시 암기 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고등 사범 학교의 입학동기인 마르셀·보와트(Marcel Boiteux)가 수개월전에 카사블랑카로 왔다고 했다. 보와트와 나는 1942~1943 년동안 기숙사의 같은방에서 지냈지만, 서로가 북부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는 프랑스 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문을 중단할 결심을 하고 있었던것은 전혀 몰랐다.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극비였던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와트는, 스페인사람들에게 억류 당할 일도없이, 단 2 주간에 스페인을 횡단했다. 실은 그는, 프랑스에 추락한 미국인 파일럿들과 함께 피레네산을 넘었기에, 그런일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들 파일럿들은 일단 스페인에 도착하자 마드리드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다. 프랑코 장군은 미국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었다. 그래서, 대사관 요원들은 파일럿들과 함께 보와트를 찾아와, 지브랄타로 데려 갔던 것이었다. 209 병참부에서, 나는 스페인에서 같은 선단으로 왔었던, 1943 년에 이공과학교를 합격한 랑그로와-베르트로(Langlois-Berthelot)를 알게 되었다. 그도 나처럼 알제리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었다. 그는 17 살이라고 자진신고 했었기때문에, 스페인에서는 「해변의 보양지」에 체재하고 있었다. 스페인 횡단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랑그 로와=베르트로와 나는 열차로, 가축용 차량이었지만 쾌적하게 알제리를 향해서 출발했다. 북부아프리카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군단이 집합 해 있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교통기관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수일동안 몇번씩이나 정차해가면서, 우리는 1 월 16 일에 알제리에 도착해, 배속된 320 기지에 합류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기대하고있었던 영구신분증명서 취득을 포함한 대량의 수속절차를 끝내고, 소위 임명일인 3 월 3 일을

기다렸다. 알제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바쿠의 콧등이 하늘을 바라보았다!」라는 연락을 보내기 위해 라디오 알제리의 사무실로 갔다. 이 메세지는 내가 북부아프리카에 도착한 표시로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미리 짜놓았던 것이다. 이 연락을 부모님들은 듣지 못했었지만, 친구들이 이 연락을 듣자마자 부모님에게 알려 주었다.

알제리에서 지냈던 6 주동안, 파리 대학 이학부 교수 졸쥬·다르모와(Georges Darmois)씨를 만나러 갔다. 그는 나에게 파리 대학 이학부 교수 이브·로카르(Yves Rocard)씨도 알제리에 있다고 했다. 나는 그가 담당했었던 고등 사범 학교 이과계 1 학년 수업에 출석했었고, 7 월에는 일반물리 학위를 취득하기위한 구두 시험을 그에게 받았었다. 로카르씨는 비행기로 프랑스를 출발했었다고 했다. 그는 무선표지의 전문가였기때문에, 영국은 그를 찾아대려가기위해 라이샌더(Lysander) 비행기를 보냈었다. 그 비행기는 1943 년 9 월 13~14 일의 밤에 포와티에(Poitiers) 지방의 평원에 착륙해 있었다. 라이샌더 비행기는, 조종사, 기관총 사격수, 그리고 승객 2 명을 태울수 있는 4 인승의 소형 단발 비행기였다. 라이샌더는, 보름달 밤 또는 거의 보름에 가까운 밤에, 레지스탕스 당원들이 지시한 평원에 착륙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640 명의 프랑스인들이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갔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레네산을 넘었던 23, 000 명 그리고 산을 넘을 수 없었던 7, 000 명의 프랑스인들과 비교하면 얼마되지 않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숫자에는 몇천명의 외국인도 포함하지않으면 안되지만.

알제리에 체재했었던 6 주동안, 나는 거의 매일 알제리 대학 도서관에 다녔다. 나는 전쟁이 끝나면 고등 사범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배웠던 수학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나는 소수 분포에 관한 아다마르(Hadamard) 정리의 증명을 읽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초월수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또한 알제리에서 나는 과학에 관한 드문 서적을 찾아내 구입했다. 앙리·포안카레(Henri Poincaré)가 쓴 3 권으로된 천체역학이었다. 나는 알제리에서 숙부 알베르·화브리(Albert Fabry)와 숙모를 방문했다. 숙부는 알제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바라 볼 수 있는 크러드·벨나르(rue Claude Bernard)의 별장에 살고 있었다.그들은 나를 몹시 환영해 주었고, 나를 몇번씩이나 그들의 집에서 재워 주었다.

3월초에, 랑그로와와 나는 계급에 상응하는 봉급의 추가 지급과 함께 소위 임명을 받은 후, 3 월 3 일, 카사블랑카행 열차를 탔다. 올때와 다름없이 긴여행이었지만 이번에는 승객용차량이었기에 편했었다. 카사블랑카에 도착해서, 스물명 정도의 젊은 프랑스인 사관 견습생과 함께항공사준비센터에 배속되었다. 우리들은 항공사가 되기위한 훈련 연수가 허가된 차기 입학자에 내정되어 있었다.우리는 4 월 12 일까지 카사블랑카에 남았다.

## 6. 마라카(Marrakech)

4 월 13 일, 랑그 로와와 나를 포함한 소위 2 명과 사관생도 약 20 명이 마라카(Marrakech)에 있었던 항공사훈련학교에 도착했다.학교를

지휘하고 있었던 사령관은, 랑그로와와 내가 군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위로 임명된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던것 같았다.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령관은 우리들에게 사관생도들과 숙식을 같이 하라고 했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그리고 이단 침대에서 자는 것은 전혀 괴롭지 않았지만, 식사 때만은 급사를 해 주는 모로코인 병사 앞에 반합을 가지고 줄을 서야만 했었다.이 병사들은 소위였던 우리들이 아직 군인이 아니었던 사관생도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모습이였다. 그들은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게 틀림 없었다. 랑그로와와 나는 몹시 당황해서, 3 일째 되던 날에 소위 계급장을 벗겨 버렸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불쾌했었기 때문에, 랑그로와에게 사령관한테 설명하러 가자고 제안했다.하지만 그는 가기 싫다고해서 나는 혼자서 사령관에게 갔다. 사령관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관들이 거주하고 있는곳에서 숙식을 하도록 해주었다.

마라카(Marrakech)의 학교에서, 나는 항법사 자격취득 공부를 했었다.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론과정의 수업을 들어야했었다. 하지만 교관이 고등수학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한 수업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초수학 정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항법사나 승객으로서 비행훈련도 해야만했다.항법사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 100 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우리가 탄 비행기는 레오 45(Leo 45), 또는 세스너기(Cessna)였다.공군 기지에서 생활은 돈이 들지 않았기때문에, 봉급의 90%를 용돈으로 썼다. 그래서, 매월 봉급을 받으면 모두 맘니아(Mamounia)호텔에 식사를 하러 갔다.이 호텔은 세계적으로 평판이 높았고 상당히 호화로웠으며, 처칠 수상도 숙박했었다고 했다.식사는 근사했었고, 값도 역시 비쌌다.

어느날 나는 폰과 베레씨와 재회해, 후에 엿사우리아(Essaouira)로 이름이 바뀌어진 마가드르(Mogador)에서 함께 하루를 보냈다.나는 받을 수도 없었지만 허가도 받지않고 외출을 했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비행훈련 명단에 실려 있었다는것, 그리고 내 동료들의 배려와 교관의 이해 덕분에 징벌을 당하지 않았다는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다. 훈련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을 무렵, 랑그로와는 승객으로 어느 조종사 훈련생의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훈련생은 착륙에 실패해 랑그로와는 그와 함께 죽어버렸다. 나는 친구들 다섯명과 함께 마라카(Marrakech)의 묘지에 랑그로와의 관을 매장했다.

8 월 18 일 훈련을 수료했다.나는 수석으로 수료해, 항법사 자격을 취득했다.나에게 있어 연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다. 그 후 계속 해서 전문훈련을 해야했기때문에, 나는 중폭격기를 선택했다. 이 연수는 대영제국(영국)에서 행해지고 있었다.8 월 20 일, 같은 중폭격기를 선택한 다른 신참항법사들과 함께 알제리에 가까운 바라키(Baraki)의 병참부대를 향해 출발했다. 1944 년 9 월 7 일, 우리는 알제리를 떠나 영국으로 갔다.우리들 일행을 태운 배들은 선단을 형성해 항해를 계속해서, 9 월 14 일 그래스고우(Glasgow)에 가까운 스코트랜드(Écosse)의 그린녹(Greenock)에 도착했다.

## 7. 영국

우리들은, 런던에 가까운 「애국 학교」라고 불리었던 수송센터에서 몇일을 보냈다. 나는 런던에서 우연히, 르크 레일(Leclerc) 장군의 조종사를 만났다. 그는 다음날 파리에서, 내가 프랑스를 나온 이후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투함 해 주었다. 1944년 9월 25일, 런던에서 Whittaker/Watson 공저의 「근대 해석학 강좌」라는 수학책을 한권 샀다. 전쟁이 끝나면 고등사범학교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영국 체제동안 대단히 주의 깊게 공부했다. 또한, 영국 체제중에 「초월수의 구성에 연분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논문도 집필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국가관계가 수복되었을 때여서, 나는 아버지에게 이 논문을 보냈다. 아버지는 이 논문을 「과학 평론(Revue Scientifique)」에 투고해 주었고, 그래서 그 논문은 그 학술잡지에 발표되었다.

런던에서 체재한 후, 나는 휘레(Filey)에 있었던 어느 기관에 파견되었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스코틀랜드의 담후라이스(Dumfries)에 있었던 「상급훈련부대」로 이동했다. 담후라이스에는 10월 10일부터 1945년 1월 24일까지 체재했다. 그 후, 나는 스코틀랜드의 로시마우스(Lossiemouth)에 있었던 「작전훈련부대」기관에 배속되어, 1945년 1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그곳에서 체재했다. 이 기관에서 비행승무조원이 형성되었고, 각 조원들은 함께 야간비행을 해야만 했다. 로시마우스는 북위 58도에 위치하고 있었고, 계절은 겨울이었다. 해가 지는 것이 빨라, 야간 비행훈련에는 적합한 곳이었다. 항법사와 부 항법사 그리고 다른 조원들이 비행에 동행했었다. 이처럼 내가 영국인의 조원들과 함께 야간비행을 하고 있었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비행기의 착륙장치가 망가져, 활주로를 질속하면서 비행기는 불에 휩싸였다. 영국인 조원들은 전원 양측에 있었던 비상구로부터 탈출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완전히 불에 둘러 싸여 그들처럼 쉽게 탈출 할 수 없었다. 웰링턴(Wellington)형 비행기는 알루미늄으로된 골조를 캔버스(canvas)천으로 덮어서 만들어져있었다. 나는 체격이 비교적 여윈편이었기에, 알루미늄 골격을 덮고있었던 캔버스천을 찢어 밖으로 탈출 할 수 있었고, 영국인 조원들이 「프랑스인 항법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로 묻고 있는 것이 들렸었다. 전원 무사했지만, 비행기가 불타는 것을 보고 있었던 다른동료는, 우리가 전원 죽었다고 생각했었다.

3월 9일, 로시마우스에서 대기하고있었던 조원들은 작전수행을 하기위해서는 할리팩스(Halifax)비행기를 타야했기 때문에 다른기지로 보내졌다. 1945년 5월 5일, 우리들은 자유 프랑스 공군소속의 두 중폭격기 부대 중 하나였던 규이엔느(Guyenne)부대에 배속되었다. 우리는 여러가지로 경멸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부대에 소속되었다. 나는 이러한 형태로, 거의 2년 걸친 고난스러웠던 모험이 끝난다고 생각하자 몹시 괴로웠었다. 3일 후, 독일은 무조건 항복에 서명했고, 전쟁은 끝났다. 우리들은 독일 상공을 비행해, 불필요하게 된 폭탄을 북해에 버렸다.

1945년 6월 18일, 우리조는 샹젤리제(Champs-Élysées)의 승전

행진에 참가했다.요오크셔(Yorkshire)의 엘빙턴(Elvington)을 출발해, 예정된 시간에 상젤리제 상공을 비행한후, 엘빙턴으로 돌아왔다.그해 7 월, 보르드(Bordeaux)에 가까운 메리낙(Mérignac)기지에 규이엔느와 가스코뉴(Gascogne) 중폭격기부대의 주둔지를 준비하는 선발부대에 배속되었다.1940 년 6 월 17 일, 드골장군이 런던을 향해 날아 오른 곳이 바로 이 기지였다!나는 보르드로부터 파리로 가서, 21 개월만에 부모님을 만나 몇일간을 지냈다. 메리낙에서 나는 아직 취득하지 않았던 마지막 자격, 이론 역학사의 자격 취득 준비를 했다.이 후, 나는 파리의 인원 소집 관리 기관에 보내졌고, 10 월 21 일 그곳에서 동원해제령을 받았다.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을 넘은지 2 년과 3 일 후의 일이었다.그 해 10 월 24 일, 나는 이론 역학의 수료증서를 취득했고, 나머지 학년을 보내기 위해, 고등 사범 학교로 돌아왔다.(끝)

번역 : W.-J. CHUN